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9

사사기 17-18장, 첫 번째 부록, 미가와 레위인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9회기, 사사기 17-18장, 첫 번째 부록, 미가와 레위인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제 홈스테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다섯 장인 17장부터 21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가장 즉시는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1장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무대를 설정하기 위해 두 부분 사이의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내리막길을 언급했습니다. 그 땅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나선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최종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 결실이 맺히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인 17화와 18화, 그리고 19화와 21화에는 더 이상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연대순으로 삼손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대순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도덕적 배도를 겪고 있으며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왕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려는 주요 요점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들을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추잡하고 천박한 이야기들에 속하기 때문에 책 끝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자면, 책이 문학 문서로 읽는 방식은 일종의 최저점, 즉 책의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사사기를 다 읽고 나면 종종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데, 확실히 이 마지막 장들이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네 번이나 언급한 부분입니다(17장 6절, 18절, 1절, 19절, 21절, 5절). 그리고 그 첫 번째와 마지막 경우에,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다들 자기 눈에는 옳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네 번이나 왕이 없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면은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어야 했고,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그 경건한 왕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이자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예배 대신에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외부 위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의 갈등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으며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외부 위협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일종의 영적 완전성이 있기를 바라지만 결국 국가는 내부에서 외부로, 핵심 자체에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는 첫 번째가 있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을 책의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부록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것은 큰 종교적 부패를 보여주고 주인공은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성경에서 배우는 선지자 미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어떤 이유로든 자신만의 사적인 성소, 자신만의 사적인 예배 장소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는 제사장이 자신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는 단 지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래 이곳 해안을 따라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거쳐 이주하여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 미가를 만나고 그가 건축한 신당과 그가 여기에 추가한 것들과 그의 그들은 그것을 탐내고 이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가지고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그가 만든 조각상과 그의 사제를 모두

가져가는데, 물론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 지파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지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예배의 도구인 단 지파가 이후 수년 동안 단 지파와 함께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야기의 간략한 요약이고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1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땅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서 훔친 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돈을 빼앗은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축복하고 그는 그 돈을 그녀에게 돌려주고 그녀는 아들의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3절 끝부분에 그녀가 새긴 신상과 금속 신상과 새긴 글자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형상은 출애굽기 20장 4절의 십계명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며, 바깥에 있는 이 신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의 물.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여성은 두 세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은을 주님께 바치고 싶지만, 그녀는 그 일을 완전히 부적절하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산 북부에 위치한 Qutilet Ajrud라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별도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혼합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75년에는 유다 남부 시나이 북동쪽에 있는 한 도시에서 매우 놀라운 일련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곧 그의 아세라로 말미암아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들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야훼를 숭배합니까? 물론 그들은 말했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그의 사진이 있습니다.

야훼를 황소로 묘사한 것이 있었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하나님인 야훼에 대한 숭배를 포함하여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분에 대한 숭배와 다른 것들을 혼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미가라는 남자의 어머니도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그녀에게 돌려주었고 그들은 그 은을 가져다가 새긴 신상, 곧 금속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4절). 그리고 그에게 신당이 있고 거기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5절). 그는 신들의 권속이며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전 경전 구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종의 편집자 의견입니다.

마치 작가가 사물의 서사 흐름에 일시 정지 버튼을 놓고 이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미묘한 점은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야기 소개입니다.

흥미롭게도 5절에서 미가 사람에게 신당이 있었다고 말할 때 거기에 있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성막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의 끝인 18장 마지막 절에서 미가가 만든 카드 형상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에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 집인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미가라는 사람은 그에게 울무가 되는 자신만의 작은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청년인데 자기가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어떤 지파의 영토도 없었으나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보통 12지파 중 한 지파당 평균 4개 정도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베들레헴은 레위 족속 성읍 목록에 레위 족속 성읍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고 유다 출신이지만 어떻게든 레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레위인의 도시 중 한 곳의 일부가 되기 위해 어딘가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소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8절에 보면 그는 유다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 그가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머물기 위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나는 행복한 방랑자가 되어 배낭을 메고 어디든 유스호스텔을 찾을 것이고, 돈을 벌 수 있거나 흥미로운 일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미가는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레위 사람이고 미가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늘어나는 성소와 신들과 형상 등의 축적에 이 사람을 추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개인 신부가 그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10절). 그리고 그는 내가 이것에 대해 당신에게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미가가 레위 사람을 임명하였고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완전히 바보이거나 참 하나님의 참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7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7장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레위 사람이 있으니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줄 아노라. 성직자.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개인 사제를 두는 것에 대한 조항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만든 이 모든 이미지와 그가 거기에 있는 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요소를 혼합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용이 없습니다. 18장 1절은 우리가 잊어버린 경우를 대비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경을 바꾸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 즉 단 지파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은 원래 바다 근처의 영토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좀 살펴 보겠습니다.

단 지파가 어디에 정착할지 이해하기 위해 여호수아서로 돌아가면.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에 있는 그룹의 마지막 상속은 단 지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시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해안을 마주하고 있고 일종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레셋 영토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47절,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단 자손의 땅을 빼앗겨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땅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었느니라.

그리하여 단 자손이 그들의 영토를 빼앗기자, 단 자손이 올라와서 레셈과 싸웠다. 그것을 빼앗아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여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 불렀느니라. 글썄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단은 이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전 이름이 레셈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중앙 산간 지방을 거쳐 위로 이주하고 있으며 결국 먼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18장에서 이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무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몇 년 후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사사기 시대 이후에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8장은 그 이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 책들이 쓰여진 것은 그 책들이 나온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면, 그 사건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여전히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8장으로 돌아가서 단 지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 1절은 그 때에 단 자손의 지파가 거할 기업을 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느니라.

이제 그것은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 시대에 있었던 그들에게 몫이었습니다(19장, 여호수아).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불안해하면서도 기사왕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9장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실제로 강제로 떠나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과 그 다음은 단 사람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다섯 명의 유능한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2절. 그래서 그들은 함께 왔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미가에서 미가를 만났습니다. 그 땅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그들이 거기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전에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3절에 보면 그들이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하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하는거야? 따라서 이 레위인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찾아 모험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미 Dan에게 가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Dan이 나에게 아주 잘 해줬고 나에게 잘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4절,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여행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들에게 6절에서 “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여행은 가는데, 그들은 의 눈 아래서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제 Laish는 Leshem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도시입니다. 라이스라는 용어는 창세기에 후기 도시 단의 초기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그 부분은 또한 여러 세기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라이스라고 하고, 여호수아에서는 레셈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올라갔고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과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며 조용하고 의심하지 않고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7절입니다. 재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그들과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돈인들은 더 북쪽 해안에 있었지만 이곳은 그다지 갈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 멋진 장소에 대해 말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단 지파가 무장한 군사 600명을 보내 그 지역을 점령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더 남쪽에 있는 기랴트 기람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하네 단이라고 합니다. 마하네는 진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일종의 단의 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시 미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간 다섯 사람은 14절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미가의 집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에봇, 드라빔, 조각한 신상, 금속 신상.

그렇다면 이에 대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 즉 1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거기로 와서 복지에 관해 물었고 600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만을 위협하는 위협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17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나갔던 다섯 사람이 와서 이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느니라. 제사장들은 모두 성문 입구에 섰습니다. 현대의 마피아 영화처럼 강한 남자, 무슬림 남자가 주위에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해자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모욕을 더하고, 미가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모은 어머니의 돈 등을 빼앗은 것 외에도, 모욕을 더하여 그의 제사장을 빼앗고 싶다고 말하며, 이 레위인을 빼앗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사장은 우선 18절에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닥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더 큰 회사로 승진하는 일종의 경력 발전 궤적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곧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백성과 함께 가니라(20절)

그리고 그들은 추격에 돌입하여 북쪽으로 갔다. 그 남자 미카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따라 소리친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내가 만든 신들을 너희가 가져가면 제사장들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물어보나요? 그리고 단 사람들은 오히려 거친 말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그냥 진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과 네 집의 생명이 잃을 것이다(25절). 그래서 단 지파는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미가의 사람은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제사장은 북쪽 라이스에 이르렀다.

조용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단 자손은 다소 사나운 방법으로 그들을 쳐 칼날에 붙이고 그 성읍을 불사르니라. 그리고 라이스 성에는 방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단 지파가 그랬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습니다.

29절에서 말한 대로 그 도시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조각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 하는 사람 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 모세의 손자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을 수 있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수백년 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기간보다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곧 모세의 자손 중 이 사람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합법적인 성직자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그들은 성막 예배를 중심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여기는 한 부족의 개인 세트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전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30절 끝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세기 후인 500년대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유배시켰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단 지파가 그들의 땅에 지파들을 위한 이러한 사적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수 세기가 지났고, 그것은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신만의 작은 사당과 그에 수반되는 물건들을 갖고자 하는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행 신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관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전에는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인데, 그녀는 이 성소를 여호와께 바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새긴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머리가 잘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거나, 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계속됩니다. 신은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얕은 이야기이지만 예배가 도처에서 왜곡되고 미가와 그의 가족, 라이스 사람들을 상대로 다양한 수준에서 만행이 자행되는 비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장에서 더 나쁜 이야기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9회기, 사사기 17-18장, 첫 번째 부록, 미가와 레위인입니다.